

"당첨됐다길래"...버스 기사 따라 즉석 복권 사본 남성, 1등 잭팟

김자아 기자

업데이트 2025.05.23. 15:25



스피토토1000 94회차 1등 당첨자./동행복권

버스 기사의 1등 당첨 소식에 평소 구매하지 않던 즉석 복권을 따라 샀다가 1등에 당첨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토토1000 94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경남 밀양 상남면 소재 한 복권판 매소에서 스피토토1000을 구매했다.

A씨는 “평소 로또 복권만 구매하다가 밀양 버스터미널 버스 기사님이 1등 당첨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피토토1000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며 “어느 날 당첨된 복권을 모아 스피토토1000 16장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스피또1000 94회차 1등 복권./동행복권

집으로 돌아와 배우자와 함께 복권을 긁어봤다는 A씨는 “평소와 다르게 당첨 복권이 적게 나와 당황했다”고 했다. 15장을 긁었는데 고작 2장만 5등(1000원)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쉬움을 안고 긁어본 마지막 복권에서 놀랍게도 1등 잭팟이 터졌다.

A씨는 “믿기지 않아 배우자와 함께 10번은 넘게 확인했다”며 “마음이 진정된 후 배우자와 당첨된 복권을 보며 기뻐했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니 실감 난다”고 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당첨금 사용 계획을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예금 후 생활에 보탬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또1000은 복권에 적힌 숫자와 행운 숫자가 일치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받게 된다.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며 당첨 확률은 500만분의 1이다.



김자아 기자



구독 +

구독수

1,109